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FY09 생보업계, 연금 · 방카슈랑스로 희비 엇갈려

□ 최근 일본 주요 생명보험회사들이 발표한 FY2009(2009년 4월~2010년 3월) 실적에 따르면, 연금 및 방카슈랑스 부문에서 판매 호조를 보인 보험회사들이 양호한 영업 실적을 시현한 것으로 나타남.

o 8개 주요 생명보험회사들의 총수입보험료는 저출산 · 고령화에 따른 사망보험 부문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 및 방카슈랑스 채널에서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대비 9% 증가한 18조 8,324억엔을 기록함.

o 메이지야스다생명은 방카슈랑스 판매가 전년대비 3배 이상 급증하여 생보업계 전체 3위권의 매출 신장을 보인 반면, 상대적으로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이 작은 니혼생명과 2009년부터 연금보험 판매를 중단한 미쓰이생명은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□ 기초이익(우리의 영업이익에 해당)은 자산운용환경 개선으로 대부분의 회사들이 호조세를 보였으나, 향후 재무 건전성 확보 및 수익성 개선 여부가 성장 지속의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됨.

o 기초이익은 주식시장 회복 등 자산운용여건 개선으로 투자영업이익이 호조를 보인 데 힘입어 다이이치생명, 스미토모생명 등 8개 회사가 흑자 전환 및 수익 증대를 시현함.

o 그러나 엔고에 의한 채권이자 소득 감소, 남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정성 확대, 인건비 증가, 방카슈랑스 확대로 인한 은행 지불 수수료 급증 등은 향후 기초이익의 호조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.

o 이에 생보업계는 책임준비금 적립으로 내부 유보율을 높이는 등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판매 채널 발굴로 비용절감을 통한 수익성 개선 노력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임.

o 한편, 외국계 1위사인 아리코재팬의 수입보험료의 경우 작년 7월 고객 신용카드 정보 유출 및 주력 상품인 방카슈랑스 전용 개인용 연금상품 판매 부진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7%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
(FujiSankei Business I, 요미우리신문, 5/31)